

社說

대학유치 기준 대학부터 쟁겨야

포천시는 서울대 국제캠퍼스가 포천지역에 들어오면 60만평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취득세와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감면과 학교 진입로 등 기반시설 조성지원 등을 앞세워 대학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여러 개의 대학이 지역에 위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는 게 포천시의 생각인 모양이다. 그동안 포천시는 수도권 동북부 지역으로 군사도시 이미지가 강했다.

최근에는 수도권에 속한다고 하지만 수도권의 이익보다는 반사적 손해를 많이 봐 온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법령과 군부대 주둔에 따른 규제, 미군 공여지 문제 등으로 인근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발달이 늦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포천시는 대학유치를 통해 이같은 이미지를 털어 버리고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영세기업 외에는 특별한 생산기반 시설이 없는 포천시로서는 대학유치에 따른 부대시설 입지와 학생들의 소비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포천시의 최대 현안 문제는 職任분리 현상에 따른 지역생산 재화의 외부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또 적주부리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 자녀의 교육문제다. 더 좋은 자녀교육을 위해 서울이나 교육도시로 이주해 왔고, 현재도 이주하고 있다. 물론 직장생활은 포천에서 하고 거주지를 타지역에서 하다가보니 교통문

제 또한 심하게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역의 재화유출과 교통문제의 큰 원인 중 하나가 교육문제라는 점이다.

이런 차원에서 포천시의 대학유치 사업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대학을 유치한다고 지역의 교육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진학률을 높일 수 있는 고등학교 실력향상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포천시 지역에는 대진대학교를 비롯해 포천중문의대, 경북대 등 3개 대학이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3개 대학이 포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학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대학과 지역경제의 연관성을 더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

현재 포천지역 소재 3개 대학의 학생들은 지역에서 거의 소비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들 학생들은 포천보다는 의정부와 서울 등에서 교외활동을 하고 있다. 대학을 유치한다고 교육도시로서 이미지가 높아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대학유치를 하면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대학들에게도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주변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포천시가 먼저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학이 지역사회의 공헌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가는 대학에 물어봐야 한다. 포천시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

벼농사용 유기질 비료 지원 공금

2007년 수도권 관련사업 관계자 협의회

포천시는 1월15일 2007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벼농사 관계자인 포천쌀연구회임원, 농촌지도자 회장, 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읍면산업담당, 농협중앙회포천시지부, 지역농협 경제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07 수도권 관련사업 관계자협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보조사업(총사업비 17억8천3백만원, 벼 육묘용상토 6억1천9백만원, 벼 농사용유기질 비료 3억5천1백만원, 벼 물바구미 농약 8억1천3백만원) 등에 관한 사업별 협의회를 구성하여 농가가 원하는 품목을 선택 농협연협구매를 통하여 100% 보조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벼 물바구미농약은 시 단위 협의회를 개최 농가가 원하는 품목을 선택 농협연협구매를 통하여 4월초 영농기 이전에



100% 보조사업으로 공급 완료하기로 협의했으며 지원대상 농가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고 기준면적(4,744ha 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쌀 수입개방 및 화 학비료 보조지원 중단에 따른 농

특필기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세계 역사에서 흥하고 망한 나라를 살펴보면 모든 원인은 당시에 능력을 겸비한 어진 신하를 등용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군주가 재능이 있고 유능한 보좌를 받으면 천하에 왕 노릇까지 할 수 있고 군주에게 재능은 없지만 유능한 보좌를 받으면 한나라와 백성은 부강하게 할 수 있다.

가장 불행한 경우가 군주에게 능력이 없는데다가 주위에 서 인재를 구할 줄 모르는 경우인데 이 경우 나라는 약해지고 결국 예의 없이 망하고 말았다.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다. 역사를 돌이켜 봄으로써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하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민족에게 역사는 늘 보복해왔다. 그러므로 역사를 돌이켜 봄으로써 현재의 남북한의 모습을 바라보는 지혜를 얻고자 한다

주(周)나라의 무왕(武王)이 은(殷)나라에 침자를 보내 그 나라의 국정을 살펴 오도록 했다. 얼마 후에 돌아온 첩자가 주 무왕에게 보고했다.

[은나라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주 무왕이 물었다. [어느 정도 은나라가 문란해지고 있는고?] 첩자가 대답했다. [사악한 자들이 충량(忠良)한 자들을 누르고 판을 치고 있습니다.] 주 무왕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판단 했다.

[은나라가 망하기에는 아직 멀었구나] 하며 때를 기다렸다. 그러던 얼마 후에 또다시 은나라를 염탐하고 돌아온 첩자가 주 무왕에게 보고하기를 [은나라는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주 무왕이 물었다. [이런데 어느 정도 인가?] 첩자는 대답했다. [지혜롭고 덕망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버리고 나가고 있습니다.]

주 무왕이 말했다. [은나라가 망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고 말하며 때를 기다린지 얼마 후에 세 번째 첩자가 은나라에 갔다. 몇 달만에 돌아와서 보고했다. [망국(亡國)의 조짐이 완연 합니다.] 주 무왕이 물었다. [무엇을 보고 그리 말하는고?] 첩자가 대답했다. [백성들이 불평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주무왕은 태공망(太公望)을 불러서 물었다. [은나라가 망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고 말하며 때를 기다린지 얼마 후에 세 번째 첩자가 은나라에 갔다. 몇 달만에 돌아와서 보고했다. [망국(亡國)의 조짐이 완연 합니다.] 주 무왕이 물었다. [무엇을 보고 그리 말하는고?] 첩자가 대답했다. [백성들이 불평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주무왕은 태공망(太公望)을 불러서 물었다. [은나라가 망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고 말하며 때를 기다린지 얼마 후에 세 번째 첩자가 은나라에 갔다. 몇 달만에 돌아와서 보고했다. [망국(亡國)의 조짐이 완연 합니다.] 주 무왕이 물었다. [무엇을 보고 그리 말하는고?] 첩자가 대답했다. [백성들이 불평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주무왕은 태공망(太公望)을 불러서 물었다. [은나라가 망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고 말하며 때를 기다린지 얼마 후에 세 번째 첩자가 은나라에 갔다. 몇 달만에 돌아와서 보고했다. [망국(亡國)의 조짐이 완연 합니다.] 주 무왕이 물었다. [무엇을 보고 그리 말하는고?] 첩자가 대답했다. [백성들이 불평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중희 민주평화포천시협의회장

이렇게 대답했다. [사악한 무리가 충량한 자들을 누르는 것을 불공(不功)이라고 합니다. 백성이 불평도 말하지 않는 것은 왕이 형벌 만으로 사람들을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은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주 무왕은 즉각 군대를 보냈다. 그것은 삼천명 밖에 안 되는 병력이었는데도 별다른 저항도 받지 않고 손쉽게 폭군 주(紂)를 사로잡을 수 있었다.

춘추시대 제(齊) 경공(景公) 때 충승이던 안영은 삼략(三略)에서 망국의 조짐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첫째, 훌륭한 인재가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찾아내려고 애쓰지도 않는다.

둘째, 훌륭한 인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쓰려고 하지 않고 정실만으로 기용한다.

셋째, 마지막에 기용하기는 하지만 인물을 믿지 않고 일도 맡기지 않는것이라 했다.

후한(後漢)말 석락 순열(簡悅)은 신전에서 나라를 망치는 네 가지 중병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첫째가 위(僞)다. 국정을 수행하는데 거짓말이 많아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부는 공신력을 잃고 국민이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둘째가 사(私)다. 공인(公人)이 공과 사를 혼동하고 옛 사람의 비유만 맞춰가며 아첨하여 국사를 그르치는 것이다.

셋째가 방(放)이다. 권력은 권력만을 믿고, 있는 사람이 돈의 힘만 믿고, 불법단체는 조직의 힘만 믿고 불법행위를 일삼는다. 이리하여 모두가 방자해지고 법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가 사(奢)다. 사람들이 모두 사치에 흐르고 마치 모든 산다 죽을 자를 처럼 과소비를 일삼는다. 순자 또한 난세조짐으로 지도층이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지는 것과 퇴폐적인 사치를 들었다.

그러면 지금 남한은 어디에 있는가! 북한은 어디에 있는가!?

새 인물

경기도포천교육청 관리과장 김 학 통

경기도포천교육청 김학통(51·사진) 관리과장이 1월15일자로 부임했다.

김 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원으로 경시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포천여자중학교, 영중중학교, 의정부 호암초등학교, 고양삼송중학교, 고양교육청, 광명여자고등학교, 고양교육청, 무

원중학교, 백산중학교에서 근무했다.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해 주엽고등학교,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평생교육체육과에 근무하다가 경기도교육청 인사에 따라 경기도포천교육청 관리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산림문화 작품공모전 입상작 전시회

국립수목원 특별전시실, 16일부터 2월28일까지

국립수목원(원장 이대섭)은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제6회 산림문화작품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회는 산림의 중요성과 우리 숲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숲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기 위해 1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산림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선정된 작품은 산림이 우리생활과 밀접하고 친화적이면서 따뜻한 면을 표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부 대상작품은 사진부에서 『휴양림의 오후』, 학생부 대상작품은 그림부에서 『가로수 숲길』, 글짓기 부문에서 『숲과 나』 등이다.

전시될 작품은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청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6회 산림문화작품공모전에서 입상

된 사진, 시, 그림, 글짓기 등의 작품 50점이다. 전시회는 1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개최된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Advertisement for 포천신문 (Pocheon New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website address.

Large advertisement for 포천신문 (Pocheon News) featuring the slogan '언제나 바른 뉴스' (Always Right News) and '포천신문은 전국 최고의 지역신문' (Pocheon News is the highest quality regional newspaper in the country). It includes a list of publication dates from 2000 to 2007.